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태초에 절규가 있었다

아스피린 소총병으로 왜 그렇게 열심히 군대생활에 임했는지?

아마도 만주벌판에서 싸우던 독립군을 그리워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비극적인 해방공간에 도망갈 길 없던 빨치산을 생각해 냈을까?

내가 제대하던 1978년 2월은 지독하게도 눈이 많이 내렸다. 전방초소부대에서 허리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쳐가며 대대본부로 내려왔다. 전역 전에 나는 사단을 대표하는 음어 및 화생방 전문요원이었고 1977년 내가 참여한 전투력측정에서는 우리 사단이 전군 최우수부대로 뽑혔다. 이를 포상하기 위해 80여 명에게 특별 휴가가 내려졌는데 그만 나는 교련 혜택으로 휴가보다 먼저 전역명령을 받았다. 눈길을 헤쳐 전방초소를 내려온 바로 그날, 함께 전투력 측정을 받았던 전우들이 버스 3대에 분승하여 휴가를 가던 중 군축령을 넘다가 그만 3대 차량 모두가 50미터가 넘는 계곡으로 굴러 40여 명 사망, 전원 중상이라는 사고가 났다. 나는 운 좋게 적시에 제대 특명을 받아 대열에서 빠지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내인생은 항상 덤인 듯싶다. 우리의 현대사가 그렇듯이어.

그리고 이듬해 박정권은 권총소리와 함께 끝났다.



정은교_ 서울대 국어교육과 73학번. 전국교직원노조 편집실장, 양강중 교사(현)

옛날 어느 어린이의 재미없게 솔직한시 하나가 있다. 원고 청탁을 받은 내 심정과 조금은 비슷해 먼저 소개한다.

보리밭

나는 보리밭을 본 적 없다.

그래서 쓸 기(=것)이 없다.

나더러 “암울한 긴급조치9호, 군사독재의 시대에 얼마나 열심히 투쟁했는지 쓰라”고 하면 쓸 것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도 억지로 읊조리면 ‘허세로 흐르기 십상이라 붓을 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 된다. 다만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늙마에 그 시대를 어떤 심정으로 되돌아보는지 가볍게 털어놓으라고 요청한다면 한 마디 거들 수는 있다.

그 시대에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젊은이들, 참 많았다. 나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군대에 바로 입대했고 뒤로 휴가 나올 때마다 동기 박석은 군의 자취방에 하릴없이 죽치고 앉아있었

다. 찾아오는 여러 후배들에게 선배랍시고 ‘지도하는 말씀(?)’ 한두 마디 읊조리고는 속으로 뿌듯해 하곤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지도가 별것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서 깨어 있는 지식인이라면 공장에 투신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겠어?” 그때는 대단한 진리를 설파하는 것처럼 스스로 도취되어 말했는데 몇 해 지나고 보니 그 방향이 이미 대학사회의 ‘상식’이 되어 있었다.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일구느냐를 따지는 시대가 이미 되어 있었다. 내가 공장입문 모색단계에서 멈칫멈칫 어슬렁거리고 있는 동안 많은 동료 후배들은 공안당국에 쫓기고 고문과 탄압을 견디며 치열하게 사회운동을 창조해 갔다. 그 시절의 젊은이들을 가리켜 ‘젊은 사자들’이라 했던가.

요즘 EBS에서 연속 방영하는 프로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1950, 60년대 지식인사회의 역사를 조명해주고 있다. ‘역사의 영역이라면 적어도 식민강점기나 해방정국 좁은 되어야 무게가 잡힐 터인데, 우리들 주변에 현존하는 인물들이 역사프로의 주인공으로 나온다 하니 조금은 낯설었다. 그들이 이 사회에 무엇인가 큰 변화의 발자취를 남겨준 인물들이라면 또 ‘그러려니’ 하겠다. 거기 선보인 김종태, 김승옥, 조동일 등등이 우리 현대사, 그 최고봉이라 할 87년 대투쟁의 형성에 마늘씨 만큼이라도 기여했던가. 김근태와 박세일을 비롯한 이 사회 지도층의 ‘자기 미화’를 위하여 그 세대가 집단으로 브라운관에 행차한 듯하여 시청기간 내 내 심기가 못내 불편했다.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다큐 제목을 따온 그 노래는 값싼 센치멘탈리즘을 불러내는 대중가요일 뿐이다. ‘마로니에’는 동송동 시절의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나무이지만 그 대중가요에서는 한갓 엘리트 취향을 자극하는 값싼 기호로만 쓰였다. 그 가요처럼 ‘마로니에...’ 다큐도 서울대 공화국인 이 나라의 지도층 세대를 추억의 정서로 아름답게 치장하는 싸구려 다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전태일 이후 각성한 대학생 층의 저항운동을 역사로 기록하는 것은 한결 긴요한 일이다. 이 시대가 벌써 ‘역사 속으로 편입되어 마땅한 지는 좀더 헤아려볼 일이지만...’

다큐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곁길로 새자. 사회사 아닌 내 ‘사소한’ 개인사 영상물을 만일 (연극영화과 다니는) 내 아들놈이 제작해 준다면 거기에는 이진순 선배(현 송실대 교수)와 김현준 후배(전교조 활동가) 등등을 캐스팅하고 싶다. 일찍이 맑시즘을 버리고 한때 김대중의 경제학 개인교사 노릇을 거쳐 KDI 원장이라는 높은 관직에까지 오른 이진순은 나와 내 동기

들을 맑시즘으로 끌어들이던 ‘교사법(?)’이었다. 착하고 감성이 어려서 후배들에게 딱딱한 경제학 이론을 강의하며 눈물을 지은 적도 있는데 그 선배의 인간적 향기가 맑시즘에 감동을 덧씌워준 셈이다. 그렇게 후배들을 망쳐놓은 사람이 저는 냉큼 주류층의 품 안으로 달려 갔으니, 그는 우리들에게 갇아야 할 이승의 빛이 적지 않다. 김현준과는 내가 어리보기 대학 시절, 사회 경험을 쌓는다는 명분으로 ‘청량리 588’에 (단 한번) 함께 놀러갔다.

그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 ‘전라도’는 서울 아스팔트족인 내게 ‘민중이 살아가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 버림받은 변방 전라도는 수많은 학생운동을 배출하지 않았던가. 지금 그는 오랜 사회운동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암 수술을 두 번이나 치르고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아, 박병태! ‘야학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떠오른 상념’을 읊은 그의 시는 참 아름다웠지. 올곧은 학자로 컸을 그는 피어나기도 전에 목숨의 이슬을 떨구었다. 군대 휴가를 나와 벗과 술을 마시다가 익사하였다고 하니 멋들어지게(?) ‘이태백’을 살았다 고나 할까...

더 길게 카메라를 비추지 않더라도 그 시대가 ‘질풍노도의 시대’였음을 우리는 다 안다. 누구 하나, 한때 시대의 앞길을 제 것으로 고민하고 가슴앓이하지 않은 적이 없다. ‘대학 졸업장’은 그들에게 감춰야 할 부끄러운 증명서였다. 벗이 고문을 못 견뎌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최루탄에 맞아 죽어간 나라에서 ‘안정된 샬러리맨 생활’은 결코 자량이 아니었다. 유복한 중산층의 삶으로 접어든 사람들에게도 벼락출세한 천민 자본가와 철학이 빈약한 관료, 수구 세력에 대한 혐오감은 뿌리깊었고, ‘개혁의 열정’은 평생을 동반했다(탄핵정국은 이들의 위기의식의 표현이었다). 저항의 시절을 함께 치르고 사회엘리트로 진입한 사람이라야 나름의 소신을 지닌 ‘합리적 보수파’로 살아갈 터이므로, 긴급조치9호 세대야말로 우리 사회를 본때있게 근대화할 첫 세대가 될 수도 있었다.

아! 군부독재 시대가 훨씬 더 폭넓고 역량이 뛰어난 계급운동과 진보정치 세력을 배출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의 헤게모니와 (함께 커나온) 합리적 보수세력의 합리적 대응으로 하여, 우리 사회는 가슴 설렐 ‘혁명’을 이뤄낼 수도 있었다. 87년 대투쟁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위대한 분수령이었다.

그리고 한 세대가 흘렀다. 70년대 반독재 투쟁과 이를 이어받은 87년 대항쟁 덕분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나아졌는가? 얼마쯤의 민주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로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마치 드높은 이상의 고지를 향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참 밀어올렸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허무하게도 원래 제 자리로 다시 밀려 왔다고나 할까.

마치 제국주의 침략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얇이 이미 인류의 '상식'이 되어 있으려니 여겼는데, 문득 둘러보니 지금도 여전히 '싸워서 인정받아야 할 얇'으로 남아 있더라는 식이다. 몇 해전부터 최장집 교수는 "87년 대투쟁이 '보수적 민주화'로 귀결되는 추세"에 대해 간절하게 경고해 왔거니와, 그의 바람대로 진보정당이 정치적 시민권을 얻고 정치지형의 한 자리를 차지한 지금도 '위험 사회'의 징후는 별달리 개선되지 못했다.

진보적인 노조와 정당이라면 어떤 소임을 해내야 하며, 그 둘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는 누가 채워야 할지, 송두리째 토론하여 큰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70년대에 품었던 식의 단순한 낙관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깊어진 사회 양극화와 장기적 경제 불안 조짐은 바로 '세계적' 계급 역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일 뿐더러, 주체들의 역량 부족이 낙관의 회복을 더욱 더디게 하기 때문이다. 마치 용량이 부족한 컴퓨터가 과다한 과제 수행을 견디다 못해 '뭉툰'이 되어버렸다고나 할까.

저희들 이익을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할 '남북 경제협력'마저 이루지 못하고 어리석게 굶픈 수구보수세력, 고작 몇 개의 개혁입법조차 단행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조로(早老)해버린 개혁보수세력, 구심점 없이 슬하계 이탈자를 낳는 한 줌의 진보세력!

지금은 사회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할 사람들이 도처에서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시대다. 내가 참여해온 교육노동운동의 경우도, 요즘 완강한 현실안주 경향 속에서 두드러지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찍이 대학생운동이 지리멸렬해지고 운동의 후속세대를 이끌어내는 과업도 만만찮게 더딘 지정인데, 그들이(자식놈 세대가) 일어설 때까지 '노땅'들이 은퇴를 미루고 펌프질을 계속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80, 90년대를 여기차게 살아온 활동가들 가운데서도 주춤춤 눈길과 발걸음을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너무 흔하다.

이러하면 '사회적 교섭(즉 노사정 참가)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에서 이수호 집행부와 반대 행동과 사이에 격돌이 있었다. 우파의 존재를 핑계 삼아 좌파가 자기행동을 100% 정당화할 수 없듯이, 좌파를 비난함으로써 우파가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더 분명하다. 국가와

자본의 포섭 공세에 아무리 견결하게 맞선다 한들 (이미 정규직의 자족 경향에 기대어 유지되는 노동조합으로서) 새롭게 얻어낼 저항의 열매가 딱히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요, 당장 비정규직 법안 개악도 막아내지 못하는 주제에 '변혁'의 미래를 말하기는 터무니없는 노릇이다. 그렇다 하여 "우리는 힘이 없다. 계급 역관계는 너무나 한 쪽으로 쏠려 있다. 그러므로 '부분적 수정'이라도 견져내는 것이 성과요, 그렇게 조그만 틈새라도 하나 찾아내는 것이 실사구시의 태도이다"라고 강변하는 것도 대단히 추레한 변론이 아닐 수 없다. 대관절 누구를 위한 '부분 수정'이란 말인가?

나잇살을 먹어갈수록 '자리'에 대해 더 많은 상념이 찾아든다. 아무런 사회적 인정도 받지 못하고 늙는 것을 견디기가 사람에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러나 사회운동에 깊숙이, 앞장서서 참여해온 사람일수록 자기가 발딛고 선 '운동의 자리'를 떠나서 허심하게 사태를 헤아리고 결단하기가 더 어렵다. 민주노총이 노사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에서 밤툼만큼의 양보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노총 단체의 위신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데는 오히려 해악으로 구실하지 않을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아무 것도 아닌 자리'다. 교육노동운동을 주도할 '자리'를 얻지 못한 평교사 평조합원 평당원이 발휘할 영향력은 너무나 작고, 소시민으로 살다 보면 현실의 흐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 딱 십상이다. 그러나 나는 비슷한 뜻을 품고 행동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와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을 믿으며 그 믿음을 지탱할 때까지는 숙명론을 물리친다. 게다가 이 자리는 텅 비어 있으므로 어떤 경우든 그 생각방향을 아전인수로 끌어당길 인력(引力)을 발휘하지 못한다. 주어진 현실을 두둔해야 할 까닭이 없는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이 보인다.

앞의 달레미에서 누구는 이렇게 대꾸할지 모른다. "오른쪽으로 가면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얻을 수 있어. 왼쪽으로 가면 땡전 한 푼 없지 않니?"

"그래, 지금 당장은 보리쌀 한 톨 없지. 그러나 새 것들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열린단다. 지금 나는 잃을 게 없거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 그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어."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70, 80년대처럼 겁없이 혁명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못 된다. 그러기 때문에 '실용'을 꾀하고 슬기로운 절충에 골몰해야 하는가? 물론 구체 현실에서는 언제

든 절충과 실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실용'을 구호로 내세우는 사람들의 속뜻을 따져 캐는 것이다.

'실용'과 '합의'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요즘 시대에,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암울한 시대라 여겼던 잿빛 군부독재의 시절이야말로 오히려 더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을까, 문득 생각해본다. 긴급조치9호는 모든 백성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자신이 '그르다' 싶은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권리는 공기를 숨쉴 권리 만큼이나 보편적인 것이 아닐까?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다 일어나 저항하라!"는 외침에 뿔뿔이 고개 돌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편적 저항'의 세례를 누린 젊은이들은 늙어서 아무리 기득권의 자리에 간다 한들 민주와 인권의 기본 '상식'을 공유하게 된다. 근대 사회는 그렇게 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만년 빙하의 날카로운 크레바스처럼 세계가 남북으로, 한 나라가 두 국민으로 갈릴 대로 갈리어 가는, 창조(尙)가 깊어지는 세계 반동자본주의의 시대에, 주체가 산산조각으로 흩어진 시대에, 우리가 감히 넘볼 목표는 당분간 혁명이 아닐 것이다. 보편적인 분노를 불러 모아 저항의 근거를 세우는 것! 인간다운 삶을 빼앗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서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까이 서로 모이는 것! 자본 우위의 일방적 계급 역관계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들은 온갖 비합리적인 사회담론에 영혼을 팔 것ियो, 불만의 출구를 찾지 못한 대중의 분노가 쌓이다 못해 엉뚱한 곳곳에서 터져 나와 진압될 것이다. 그들의 분노에 이름을 붙여주고, 보편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폭넓은 '유기적' 지식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분노들은 다시 절망을 낳으리라. "우리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었더라면..." 전태일 열사의 냇두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건만 세상의 앞일을 누가 알랴?

... 사상이 탄생하는 것은 이성의 몸짓으로부터가 아니라, '분노'로부터이다. 우리는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불화(不和)의 음(音)'은 다양한 모습을 띤다. 어렴풋한 불만의 종알거림, 좌절의 눈물, 분노의 절규... 분노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심문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 우리는 거미줄에 붙들린 파리들이다. 울가미에 걸린 상태에서, 궁지에서 시작한다. 달리 시작할 곳

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불러오는 '불화의 음' 바깥에서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시작할 수 없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거미는 파리에게 묻는다.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니?" "객관적이어서지, 너의 편견을 버려!" 그러나 파리가 아무리 원해도 객관적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거미줄을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바라보라고!" 이것은 공허한 속임수의 꿈이야. 파리의 불들림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존 홀리웨이의 글 한 대목)